

해피밀 시즌 4-3호를 발간하며, 정체성을 바꾸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이번 사도행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한 복음의 여정들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환상, 스테반을 향한 박해와 흩어짐, 예루살렘 회의,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등. 구원에 관하여 어떤 소망도 없던 이방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여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정의 한 순간, 한 순간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여정이 왜 이렇게 더디냐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찬찬히 읽어 내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여정을 주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과 달리 때때로 우리는 죄와 유혹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와는 별개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여정엔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 그것을 압도하고도 남는 주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하심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시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Paul Jung

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 네가 지금 사람들을 옴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7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 이 일을 다 이르고 옴바로 보내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

오늘 본문에선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군인이었습니다. 뱃속까지 이방인이었던 그는 뜻밖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던 자들은 황제를 마치 신과 같이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치만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주 특이하고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 그의 집에 초청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와 고넬료의 첫 만남을 생각하면 늘 베드로만 그 자리를 불편해하고 꺼렸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만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순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로마는 오직 황제만을 신으로 여기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이 유일한 신이라고 외치는 집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를 가까이 한다면 고넬료는 그의 백부장 자리가 위태로워 질 수도 있고, 곤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또한 지체하지도 않고 곧바로 순종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평상시 삶에서 그는 명령을 받으면 이 명령을 곧바로 실행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도 다른 이에게 명령하면 그의 종들이 그의 말을 따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생활의 모습이 곧 신앙의 모습으로 연결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내 신앙은 내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자가 신앙에서 열심을 낼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이가 더 큰 일에 충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삶의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삶의 터전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이상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중 상반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Q. 삶의 터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9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 시더라 10 그가 시
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
어 땅에 드리웠더라 1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
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14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
나이다 한대 15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말씀 앞에서 유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선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앞둔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에게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
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신다
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됩니다.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고정 관념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걸로 보아 베드로는 역시나 한 고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 관념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
의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늘 정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유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갈아엎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내 생각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겻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가능한 이 고난의 잔을 옮겨 달라고 기
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기도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를 만나라는 순종하기 어려움 말씀을 받았을 때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묻지도 따지지
도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우리 마음 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유연하고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Q.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변화를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17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21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문화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신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는 그 환상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것이 이해되지 않자 그것을 두며 생각하고 기도하였습니다(19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그를 찾아올 것인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를 찾아온 자들을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였습니다(23절). 그러나 이 행위는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었기 때문입니다(2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러한 위법적인 행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문화와 관습을 깨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이성과 문화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며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대개는 상식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그에게 올지 않을지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들여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24절). 그는 문화와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 입장하였을 때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그를 맞이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며,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와 권위를 다 소유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가 유대인 앞에 엎드렸을 때, 베드로도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 삶 가운데 말씀과 문화의 충돌은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Q. 말씀과 문화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입니까?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6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7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자격없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님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은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는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복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을 뛰어넘어 이젠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만일 이들에게 베드로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셨더라면 유대인들은 성령 임재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당시에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도 모두 이 사건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한 성령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것을 주님께선 베드로를 통하여 확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뛰어 나서, 그가 능력이 많아서, 혹은 그가 특별해서 오직 그를 통해서만 성령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하셨기에 그는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분이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그 인생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까지 자격 없는 자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뛰어나고, 거룩하고, 달라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용납하실까?'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차별 없이 임하십니다. 거룩하다고 여겨졌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더럽고 부정하다고 생각되었던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 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에게 있는 좋은 것, 특히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유하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인 혹은 이방인과도 같은 존재가 내 주변에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Q. 자격 없는 나같은 자에게도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통로로 어디서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1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4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5 이르되 내가 욕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6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둔감해진 마음**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기뻐하여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유대인 중에는 여전히 할례를 중시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중시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할례자들과 식사 교제를 나눈 베드로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율법이라는 규정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우리 또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젖어들어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둔감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영혼을 위한 사랑과 복음이 회복되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직접 찾아가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가 보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순종으로 그 자리에 임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능히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도행전 1:8에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저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전파를 위해 가장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Q. 지금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으십니까?

2025년 7월 19일(토)

우리 식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색칠하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미취학(3~7세) 자녀와 함께 말씀으로 색칠하는 하루

사도행전 10장 34-48절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차별 없는 성령님은 이방인에게도 임하셨습니다!



19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큰 그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시며, 큰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겨우 눈앞에 있는 일들만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시간과 장소에 얽매어 있는 우리는 주님의 ‘큰 그림’을 바라본 순간 압도당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반의 순교는 곧 선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누군가는 스테반의 순교를 보며 헛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과연 선행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심하는 것이고, 그분은 신뢰하며 기쁨으로 순교한 스테반을 없신 여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테반의 순교로 시작된 선교는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선교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헬라인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 소식을 기뻐하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는 ‘큰 그림’을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초석으로 베드로의 환상과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신념, 문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실속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손해 보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모든 역사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실속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큰 그림’을 사모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며 ‘아깝다, 비효율적이다, 손해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꽤 괜찮았네?’라고 생각이 변했던 적이 있나요?

Q.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묵상해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27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큰 그림 2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큰 그림을 신실하게 그려 가십니다. 그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모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꿈 꾸지도, 헤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라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큰 그림에 속하길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문제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 우리의 자격, 조건, 실력은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이 주인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습니다. 따라서 물질이라는 요새를 뚫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질은 서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빼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매우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은 물질로 평가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로 증명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강력한 가치 가운데 현금을 하는 것은 매우 미련한 일입니다. 다른 교회를 돕고, 어려운 이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일입니다. 손해 보는 일이고,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을 너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도록 요청하십니다.

아가보는 성령으로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성령에 따라 예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는 이단적 설교나 가르침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뒤늦게 복음의 은혜를 입었지만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며 부조를 보냈습니다. 물질의 연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속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으로서 빛을 발하고, 마지막 날 칭찬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물질의 강력한 연대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소망했던 경험이 있나요?

Q.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쁨으로 부르심에 반응해본 경험이 있나요?

1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상황보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좋은 날이 있다가도, 좋지 못한 날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이 만사형통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늘 성공하고 잘 풀리는 일만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포기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일을 막아 주는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꽤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용납하여 주고, 물질을 나눠 쓰는 일들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두운 구름이 들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곳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구금하였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헤롯은 유대인의 인기를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 그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땅에서 통치를 하기 위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도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도, 초대 교회 시대의 헤롯 왕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 박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 복음은 걸리적거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매우 당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기쁘고 복된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길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즐겁고 감사한 은혜들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은혜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주일 말씀을 듣고 적용하였다가 당혹스러움을 겪었던 적이 있나요?

Q.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제목을 소그룹, 교회와 공유하길 소망합니다.

6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 18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벼랑 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은 벼랑 끝에 몰린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분이 드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힘과 용기를 얻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사도 야고보는 헤롯과 유대인들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다음 순서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재판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깨우고 나갈 채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그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 온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깨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과 미혹하는 영들은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덮칩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다, 잘 믿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서 교회는 살아 돌아온 베드로의 소식을 접하고 '미쳤다'라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치고는 참으로 믿음 없는 표현입니다. 확신 없는 기도에서 소망을 발견하긴 어렵습니다. 될 일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연약한 베드로, 확신 없는 교회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군인들은 베드로를 찾지 못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헤롯은 결국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십니다. 신발을 신기고, 띠를 띠고, 겹옷을 입게 하십니다. 벼랑 끝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협(편견, 헐박, 회유 등)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Q. 주님께서 만드시 일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손해를 감수하신 적이 있나요?

20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말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21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5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그분의 사역도 신실합니다.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식으로 열매가 맺히진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시간과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고자 맡겨진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놓친 헤롯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의 명성에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이때 그를 방문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헤롯으로부터 노여움을 사고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연설 앞에서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며 아침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때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침을 기뻐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그것을 경험한 헤롯 그리고 비신자들은 이제 돌아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경험, 생각, 교만함을 꺾고 주님께로 돌아설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여전히 자신의 위로를 사람들에게서 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헤롯과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은 흥왕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헌금 전하는 일(사도행전 11장)을 마쳤지만 그들은 그다음 사역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주님의 신실하심을 쫓아 신앙생활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일은 반드시 선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속하여 빛나는 영광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이 있나요?

Q.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여 기뻐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 식구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6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겹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느니라

17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8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성령과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뒤 일어난 가장 첫 번째 선교 파송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인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는 두 주체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2절 말씀에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이 선교사 파송의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원한 적이 없고, 안디옥 교회의 유력한 사람이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의 주체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수 많은 경건한 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력한 한 개인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기도할 때'의 뚜렷한 주어는 보이지 않지만, 1절과 2절의 문맥상 '교회'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를 하는데, 이 또한 1절의 문맥에 따라 '교회'가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또 하나의 주체자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교회'가 순종하여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교회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개인주의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이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판단과 정죄를 일삼으며 교회를 파괴하고, 공교회성을 무시하곤 합니다. 때론 목적지향적 사람이 자신의 선교적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교회의 공교회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바램을 이루기 위해 개인적으로 움직이며 덕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의 명령을 결코 한 사람이 사사롭게 받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에 열거된 경건한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반대로 과도히 제도화된 공교회는 함께 모이고, 많은 행사를 하지만 성령님의 감동과는 무관하게 하며 덕이 되지 않곤 합니다. 그들의 성령님의 뜻과 바램은 중요치 않으며,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이며, 안정성과 공교회의 무궁한 발전만을 위해 회의하고 의결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주체자이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동일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 안에는 성령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기도의 모습이 살아있나요?

Q. 나의 행동과 생각이 공교회에 덕이되고 유익한가요?

4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6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9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구원의 아들이나 마귀의 자식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바울, 바예수(엘루마), 서기오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며 매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한 전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예수라는 자의 이름은 주목할만 합니다. 누가는 이것을 주목하도록 일부러 그의 본명을 제시한 뒤 그의 별명이 '엘루마'인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의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보자면 매우 좋은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그의 실상은 구원의 아들이 아니라 바울의 정죄를 따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하는 자"입니다. 그의 겉으로 보이는 이름과는 다르게, 그의 실체는 악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전하는 곳은 이처럼 마귀의 자식이 '구원의 아들'로 둔갑한 곳이었습니

다. 서기오 바울은 얼마간 이 자에게 사로잡혀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절 말씀에 '그가(바예수)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쉬운성경에서는 이것을 '늘 붙어 있었습니'라고 표현합니다. 바예수는 계속해서 서기오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에게 거짓, 잘못된 구원, 잠깐 쾌락을 주는 마술로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진정한 복음을 듣자 바예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의 정보가 다 거짓이었으며 그는 구원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때론 우리에게도 이러한 바예수는 늘 따라다닙니다. 그들의 실체는 결코 한 눈에 파악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아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귀의 자식'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며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 앞에 보이는 '바예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신중함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 가운데 그 바예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현재 내 삶에 있는 '바예수'는 어떤 것인지 찾아봅시다.

Q. 오늘 성경을 읽으며 깨닫게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봅시다.

13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7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마가가 떠난 이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가가 떠나게된 사건을 먼저 마주합니다. 마가는 이 전도여행을 하던 도중에 지치고 힘들어서 떠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에 이 마가를 다시한번 전도사역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을 보면, 결코 마가가 좋은 일로 떠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록에 따르는 마가는 유복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배를 타고, 험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숙박할 곳 하나 없이 황야와 같은 전도여행을 감당하기는 어렵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마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전도여행은 실패한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전도여행에서 실패한 이유를 마가의 됄됨이, 마가의 배경에서 찾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며 마가가 실패한 진짜 이유는 그의 됄됨이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가 넘어지고 지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마가는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끝까지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며 성령님께서는 늘 바울과 바나바를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번 전도여행에 부름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후 성령님께서 마가를 통해 마가 복음을 쓰게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지점에 부르셔서 그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번 전도여행은 마가에게 있어서 부르심은 없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위해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들을 붙들여 주사 반드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도바울의 설교에는 그 부르심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밖으로 부르시고, 사사들을 부르시며, 다윗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을 향한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린 마가와 같이 넘어질 수 있고, 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실 것을 신뢰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셨나요?

Q. 나의 바램과 결심대로 사역하다가 지치시거나 넘어지신 경험이 있나요?

42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4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6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0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51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 고니온으로 가거늘 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오늘 본문은 밤빌리아 버가에 있었던 선교사역의 열매요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중추적인 핵심은 38-3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방식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인이 능히 다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께서 대신 행하셨고, 우리는 단지 그 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는다는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에게 43절 말씀에서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심과 같이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보고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이 말한 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있는 것'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두 다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자기구원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확신하는 자는 많은 부분에서 기뻐하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율법을 집착적으로 고수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부부관계가 파탄나서 의무감만 가득한 채로 억지로 관계를 끌고가는 안쓰러운 관계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죽을 죄인을 사랑과 자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 설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혜 안에 있는 것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요즘 신앙생활하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Q. 오늘도 누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고백해봅시다.

1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2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3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4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5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6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7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보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요한계시록 3장 7절)"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면 도무지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놓고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의 행태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과 같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악감을 품게하기 위해서 '선동'" 하고 있습니다. 선동이라는 단어는 참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헤게모니 운동을 장려했는데, 국가의 전체적인 이념을 차지하기 위해 기동전과 참호전이라는 선동운동을 장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만나는 이방인들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 기동력있게 선동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당이라는 중추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미혹하며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선동방법은 매우 악랄했고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에게서는 정치적인 면모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3절 말씀과 같이 그저 오래 참으며(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설교사역)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그 어떤 참호도 뚫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드릴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면 도무지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이야기는 우리의 정치력, 우리의 선동력, 우리가 가진 기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참음'입니다. 오래 참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으로 그 어떤 완악한 마음도 뚫어냅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래 참으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서 살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직장, 가정, 교회, 동교회, 하나님을 배척하는 완악함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오래 참으며' '말씀의 검'으로 완악함의 참호를 뚫어내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의 삶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악함 자들의 모임이 있나요?

Q. 오늘도 힘주시고 견디게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2025년 8월 2일 (토)

우리 식구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읽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1. 아동(11~13세) 자녀와 함께 말씀먹기

1) 우리 가족 성경 읽기 :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2) BINGO! 빙고타임! 사도행전 8장 1-7절을 읽으며 기억에 남는 단어를 골라 3x3 빙고를 완성해보세요.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예수의 사람

1. 7월 2일 해피밀을 읽고 가정에서 나눌 말씀을 준비해주세요.
2. 인생에 고난이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깨달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주세요.
3. 고난과 환란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경험을 나누어주세요.
4. 부모님께서 기도문을 준비하셔서 가정예배 후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8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 15 이르되 여러분
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6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
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18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나를 통하여

우리는 무언가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두고 찬양하곤 합니다. ‘대박! 너 노래 실력이 완전 박효신 같다, 멋지다! 너 오늘 스타일이 지드래곤 같아, 지드래곤도 울고 가겠다.’ 매우 높은 사람과 비교하여 대상을 띄워주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부끄러워하면서 내심 기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들과 견줄만하다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을 때 매우 기뻐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그다음 행선지로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르 마주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일어서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결과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를 두고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띄워줍니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비교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칭찬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신격화된 자신을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을 즐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의 칭찬에 옷을 찢었습니다. 혹 자신들로 하여금 복음이 잘못 전해질까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들을 고친 그들의 능력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겸손함을 고백하고 그들의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간절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을 믿고 그들의 삶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믿는 자들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나로 인하여 복음이 잘못 전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고 그를 위해 마땅한 삶의 제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욕심과 만족, 기쁨을 위해 살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위해 삶이 제단 되어야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누군가의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Q.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나요? 혹은 가리워지고 있진 않나요?

19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20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다시 일어나

때론 복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못살게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복음이 귀하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악한 무리는 우리보다 복음의 가치를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고 또 막습니다. 생명까지도 위협하며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은 육체를 죽일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와 영혼 모두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곳곳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였으며, 귀신 들린 자와 미신적 요소들을 제거하며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유대적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아들을 미워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쫓아왔습니다. 사사건건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무리를 충돌하여 결국 바울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쳐 죽였던 스데반을 생각하며 또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유대인들을 겹쳐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러저러한 생각 가운데 바울은 많이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물리치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스드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울을 다시 일으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1차 전도여행을 마치며 선교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그들을 대적해 가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감옥의 문을 열어 주시기도 하고, 본문처럼 제자들이 찾아와 일으켜주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을 얻어 오늘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맡기신 길들을 모두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복음을 전하다 완전히 무너져 힘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Q. 어떻게 다시 회복하였나요?

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3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 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구원을 받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도 없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를 받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일말의 희망도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함의 길을 걸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으니 그저 믿는 방법뿐입니다. 믿는 것 또한 내가 스스로 취하는 능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능동적 이도록 돕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유대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법 때문입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이제는 유대 민족의 소속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판단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바리새파 무리들은 동일한 답을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이 표시를 통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약의 성취자가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표시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고백하긴 하지만, 피상적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백과는 다른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단호히 배격하고, 폐기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할례를 할 수도 있으나, 할례로 인하여 다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도록 힘쓰시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것들로 인하여 공동체에 분란이 있던 적이 있나요?

Q.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분란이 있던 적이 있나요?

6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역사와 전통을 넘어

집 안 구석에 있는 곰팡이를 제거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한 층, 한 층 여러 층으로 쌓인 곰팡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지우기가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벽지를 다 뜯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빠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온전한 벽지도 함께 뜯어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생긴 곰팡이는 금세 옆으로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쌓인 곰팡이는 역사와 전통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 삶에 자리 잡아 뿌리를 뽑기 힘듭니다. 좋은 역사와 전통이라면 당연히 계속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린다면 고통스럽더라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할례와 복음, 이방인의 문제들을 두고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의 편에서 이해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과 일의 되어짐(섭리)을 주장하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사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정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느냐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유대인)가 메지 못하던 멍에를 고백하며 자기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그는 자신만을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닥친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다루지 못해 예루살렘까지 왔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 마디는 향후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영향 받을 이들을 주목했으며,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성도님들 또한 문제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마음,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결하셨나요? 나의 유익과 감정을 위했나요?

Q. 최근에 발생한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았나요?

12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3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9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건전한 토론**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고 적용하기 위한 귀한 모임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건전한 토론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별것 아닌 일도 토론을 하다 보면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도 상대방의 태도로 인해, 감정으로 인해 틀린 이야기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토론이라는 것은 매우 정교하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바나바와 바울, 세 번째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는 어제 살피보았듯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증했습니다. 바나바와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방인에게 드러난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증했습니다.

오늘 두드러진 표현 중에 14절의 “시므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의 히브리어 이름인 시미온(Simyon)의 헬라화된 철자(스펠링)입니다. 즉 그는 지금 히브리어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따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친근히 다가가는 것을 넘어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장하고 확증합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어순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만민 중에 택함을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이 율법의 어순만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더욱 확장, 확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또한 그들의 백성 중에 들어올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보다 더욱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시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의 독단적인 생각, 단체의 편향적인 의견만을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환상, 표적과 기사,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오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건전한 토론도 하고, 기도도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선부른 결정으로 인해 후회를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Q.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보았나요?

우리 식구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8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
어 본 적이 없는 자라

9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1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
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15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6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
게 하셨느니라 하고

18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COME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